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금융위,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후 금융시장 점검 강화

□ 금융위와 금감원은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의 국내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으나 남유럽 재정위기의 재 부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함.

-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는 발표 이전부터 이미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던 만큼 금융시장에 영향이 선(先)반영된 것으로 판단함.
 - 단, 결과 발표가 금융시장에 주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해도 향후 북한 대응에 따른 변동성이 존재하고 있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음.
- 최근 남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확대가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더 큰 원인인 것으로 평가함.
 - 우리나라의 경제·금융시장에 대한 대외 충격의 흡수 능력이 이전보다 향상되었다고 해도 주요국의 증시가 대체로 하락세를 이어가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.

□ 남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상황 속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부각될 경우 금융시장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전적으로 금융시장의 안정화에 노력할 방침임.

- 주식·채권시장의 외국인 자금 유출입 현황과 환율시장 및 외환유동성 동향을 수시로 점검하고 수출, 원자재, 물가 등의 실물경제와 연계한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함.
- 상황 변화에 대비한 대응계획을 재점검함과 동시에 시장 상황이 변할 경우 변화에 따른 필요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확고히 할 계획

(천안함 조사결과발표 이후 대내외 금융시장 점검을 위한 비상금융합동대책반회의 개최,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등, 5/23)